완전한 터

(히브리서 6:1-12)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어도 복음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린 복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예배를 통해 듣기 때문에 예배만 회복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간단하고, 세상도 말씀만 따라가면 간단합니다. 이 답을 얻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1. 완전한 터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완전한 터라는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는 중에 난해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목사님들에 따라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함께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잡은 언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상한 말씀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 원칙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율법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교훈의 터가 완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은사, 빛, 성령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4, 5절은 완전 구원 받은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니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9장 11절에 '야곱과 에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종의 자식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 사건을 그대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가졌고,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부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구원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선이나 악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행위, 우리의 어떤 것도 상관 없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4절과 5절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타락을 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인데,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다고 위의 성경 구절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행위도 우리의 구원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결정되는데, 이 타락이 어떤 타락이길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타락을 설명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인가? 또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합니다. 결국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의 결정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 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종교와 같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다른 내용에선 복음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내용을 가지고 신약적 표현을 한 가장 중요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끝까지 하라는 권면입니다. 12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도 권면입니다. 구원의 논리, 신학적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닌 권면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그래서 4절과 6절의 말씀 또한 권면으로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언약을 깨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

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는 신학적 단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등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런 것들도 그들의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저자가 자기의 생각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저자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다른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반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이 있더라도 히브리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원칙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본문 하나가 성경 전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결정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9절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9장이나 태중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뒤엎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칙을 알고,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선택을 주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2.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 말씀을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정복하고, 누리고,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증거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이사야 55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그냥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면 네 영혼이 살아날 것' 이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1-2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배경을 두고 엄하게 명령하였는데, 그 내용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 사역이며,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모두 말씀을 받고, 따라가면 됩니다. 시대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 때문에 시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평생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모두 인생을 정복, 모든 문제를 정복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답은 내가 평생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바로 왕)도 모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모여도 모르는 것을 요셉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한 사건으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받은 말씀으로 형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 들을 사람에게 전달하면 현장의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속하면 말씀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품이 나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혼자 결심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